

대학원중심대학의 기능성과 한계

한 민 구 | 서울대 공과대학장

I. 우리나라 대학원 현황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고등교육 개념이 소개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용어가 넓게 쓰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통칭하는 대학원중심대학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으로 주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의 교수들이 겸직을 하고 있으며, 138개 대학 53,117명의 입학 정원으로 되어 있다.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 분야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 개발로서 원칙적으로 석사 과정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박사 과정도 가능하며 학부와 연계 없이 별도의 전임 교원과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72개교의 99개 대학원에 6,331명의 입학 정원이 있다. 또한 직업인,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과정인 특수 대학원에는 174개교 708대학원에 입학 정원 53,310명이 석사 과정을 중심으로 실천적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연·산 협동 과정이나 학과간 협동과정이 있으나 일반대학원과

큰 차이가 없으며 50여 개교 4천명 내외의 입학 정원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학원은 그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한국은 대학원 재학생 수가 243,270명으로 인구 천명당 대학원 학생 수는 5.3명인 것에 비해, 미국은 대학원 재학생 수가 1,016,341명에 인구 천명당 대학원 학생 수는 3.8명, 일본의 경우는 대학원 재학생 수가 205,311명에 인구 천명당 대학원생 수는 1.6명, 프랑스는 대학원 재학생 수 204,465명에 인구 천명당 대학원생 수는 3.5명, 영국은 대학원 재학생 수가 167,000명에 인구 천명당 대학원생 수는 2.8명, 러시아의 경우는 대학원 재학생 수 98,355명에 인구 천명당 대학원 학생 수는 0.7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대학원은 선진국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적정한지, 인구당 재학생 수가 과다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학원중심대학과 선진국의 연구중심대학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 20세기 초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학문적 토양이 취약하여 많은 대학의 학자 및 교수요원들이 미국 내에서 양성되지 못하고 영국과 독일에서 훈련을 받았고, 유럽의 학자들이 미국의 대학 교수로 채용되고 있었으며 미국 대학은 학부교육중심으로 육성되고 있었다. 미국의 경제사

회의 발전에 따라 학술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급속한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학부교육보다는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한 것은 Johns Hopkins 대학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적 중심으로 부각하면서 미국의 대학이 급격한 팽창을 하고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어 연구중심대학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주목할 점은 미국의 경우 의대, 법대, 경영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Medical School과 Law School은 학부 과정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서 대학원 학생 숫자에 포함되어 미국 대학원 학생 수 및 위상 정립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의대, 법대, 경영대학원의 선호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반대학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II. 대학원중심대학의 문제점

한국의 경우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학원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특히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원 재적 학생 수는 급격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원을 설치하고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석사 과정 학생 수는 일반대학원보다 전문·특수대학원이 훨씬 많은 반면, 박사 과정의 경우는 전문·특수 과정은 아주 적은

<표 1> 대학원 학생 수 변화

(2001. 12. 현재)

연 도	학교 수	학과 수		재적 학생 수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1970	64	532	281	6,640
1975	82	808	422	13,870
1980	121	1,108	649	33,939
1985	201	1,924	1,015	68,178
1990	298	2,998	1,289	86,911
1995	421	4,225	1,602	112,728
2000	829(17)	7,330(34)	2,412(3)	229,437(2,164)
2001	905(18)	7,880(38)	2,667(8)	243,270(2,063)

* ()는 대학원 대학의 자료로서 합계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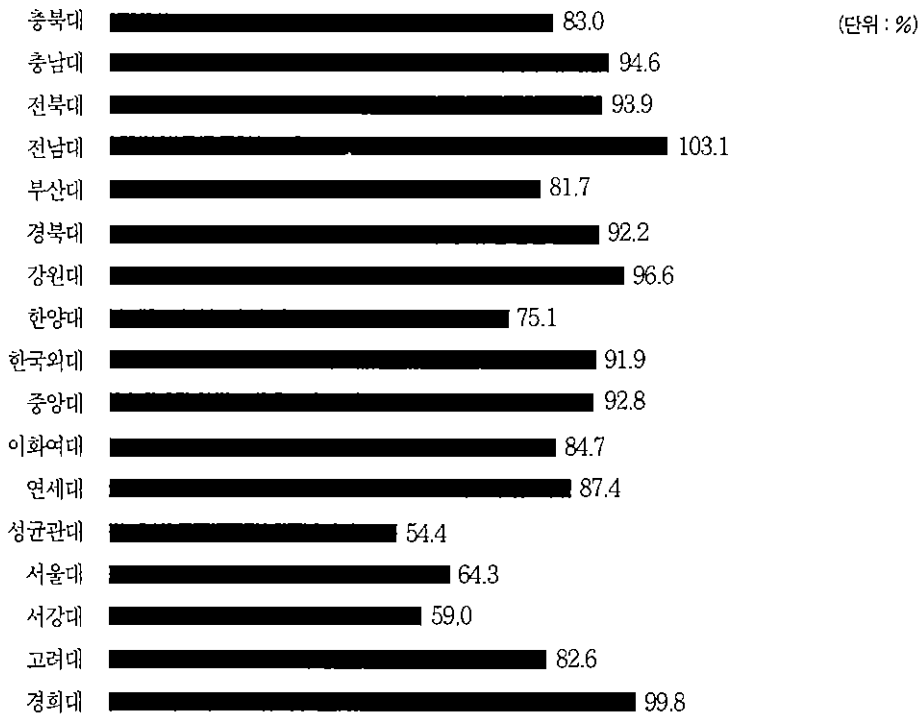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2

<표 2> 2002년도 일반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석·박사 재적 학생 수

(단위:명)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재적 학생 수	117,355	145,512
석사 수	82,810	144,132
박사 수	34,545	1,380

〈표 3〉 17개 대학 박사 과정 입학률



* 자료 : 중앙일보, 2002. 11. 13.

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 학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박사 과정의 경우 최근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박사 과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는 2003학년도 박사 과정 정원을 37명이나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미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원중심대학의 성공적인 추진은 대학원이 학생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졸업장이 아니라 대학원 교육 자체가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고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대학원중심대학의 존립 타당성이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원 교육이 부실화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어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모든 대학에서 박사 과정이 미달되고 있다. 또한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도 전일제 학생의 비율이 높지 못하며 질적 수준도 담보 상태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이 〈표 4〉에서 보듯이 증가되고 우리 사회에서 국내 석·박사보다는 해외 석·박사를 우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국내 박사 학위의 채용에 있어서도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박사 진학의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Ⅲ. 대학원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논의

지식정보사회에 돌입하면서 고급 인력 수요는

〈표 4〉 국내 학생 해외 유학 추이

1993년	84,765	(단위: 명)
1995년	106,458	
1997년	133,249	
1999년	120,170	
2001년	149,993	

* 자료 : 중앙일보, 2002. 11. 13.

증가되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 확보는 학계는 물론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중요한 명제이다. 우수 인력 확보는 대학원에서 양성되는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바 대학원 중심대학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원의 경우 양적 팽창은 질적 향상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석·박사 학위자의 공급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고향력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대학원보다는 MBA 등 전문 대학원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일반대학원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되는 고향력자들의 공급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부 등에서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부분에서도 국내보다는 해외 유학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대학원중심대학의 존립 기반이 있는가 하는 상황에까지 봉착하였다.

국내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분야별, 학위별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대학원 정원 조정에 참고하여야 한다. 수요가 있는 분야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분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학원 진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을 이를 참고하여 대학원 진학자들의 직장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대학은 막연히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허구보다는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학의 교육 목표를 적절히 선택하고 특성화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대학원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국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BK21 사업 이외에는 대학원에 대한 지원은 높지 않은 바 향후 인력 자원 면에서 대학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대학원중심대학은 대학 사회의 선택이며 대학원중심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과 과정 및 교육 방법 및 연구 능력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대학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독특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한민구**

한민구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석사 학위를, 존스홉킨스대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뉴욕주립대 조교수, 서울대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및 공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